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혼돈에서 질서를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금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9.8%라는 발표가 있었다. 총체적난국 속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수출이 둔화되어 무역수지는 적자라고 하지만 내수서비스산업의 호황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다고 한다.

또한 금년상반기의 특징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 후유증, 그동안의 무역 흑자에 의한 자금공급이 늘었고 89년말의 증시안정기금 등 통화팽창, 부동산가격 폭등, 과소비 등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물가당국만은 농축산물가격이 물가의 주범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곤욕을 겪었다.

지난 6월 19일 대통령주재의 물가대책회의 내용도 쌀, 쇠고기, 돼지고기가 주요 대상이었다.

쌀이 남아서 쌓아둘 창고가 없어 쌀막걸리, 쌀과

자, 쌀라면을 먹으라고 야단인가 하면, 한편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하루세끼도 못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하니 쌀이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보통정신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편에서는 무우가 생산비도 안된다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장면이 TV로 나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 하게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무우말랭이 수입에 정신이 없다고 하니 무우 수입업자가 무우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장면을 TV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지난 7월 5일 여의도에서는 분유가 채화되어 죽는다고 낙농업자들이 시골에서 불원천리 서울로 데모하러 올라왔는데, 재벌회사들은 분유수입에 (쇼코파우더) 열을 올리고 있다니 분유가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수급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리를 농사지어 수확해 보아야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밭에서 불살라 버린다는 보도를 보고는 사료용대맥 수입요구는 잠시 보류하기로 하였다. 옥수수 등 다른 곡류의 대체로 수입하는 것이지만 웬지 보리농사짓는 농민들에 미안한 것 같아서이다.

논밭에서 땀흘려 김매고 있는데, 옆에서 골프치는 것을 보면 열이 오른다는 농부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열내리는 해열제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 양돈농가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돼지고기통조림을 수입해서 톡톡히 재미를 보면서 도

산하는 양돈농가를 향해 「용용 죽겠지」하는 놀부 심보를 가진 통조림수입업자가 있기에 금년초부터 소시지가 수입된다.

육가공용원료육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빗더미위에 있는 양돈농가의 복장을 긁어 돼지끼리는 것을 집어치우고 싶도록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쇠고기를 수입해서 풀어제끼는데 여기에도 떡고물이 묻어 평소에 낯익은 얼굴이 시원한 잠뱅이로 갈아입고 9시 뉴스 황금의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출연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물가를 오르게 하는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모자라는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정신없이 돌아간 상반기 6개월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 6개월도 조용히 보낼 수 없다는 신호탄이 돼지고기에 중금속잔류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도 연구소는 기초연구조사를 했을 뿐이고, 기자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흥미위주로 쇼킹하게 보도했을 뿐이고, 죽느니 개구리라고 양돈농가만 피해를 보고 결과는 아무도 잘못된 사람은 없으니, 양축농가는 토정비결이 나쁜 탓이라 생각하고 참으라는 결론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약삭 빠른 장사꾼은 국산 축산물은 아예 먹을게 못되니 수입고기를 먹으라고 광고까지 하니 제정신 가지고는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

가격문제는 이제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입법을 해서 제도적으로 축산물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신문보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 가격지정정책은 쓸 수 없다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다. 어떤 쪽이 맞는지 알아맞추기가 힘들다.

학자들은 돼지고기의 지방은 융점이 사람 체온보다 낮아서 자신도 모르게 축적된 수은, 납 등 중

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을 하며, 특히 탄광촌의 진폐증환자에 좋다고 하는데, 중금속을 체외로 밀어내는 돼지고기에 중금속이 잔류되었다고 법석을 떨었다. 물론 중금속이 잔류되면 안되지만 기자 한사람에 온 축산업계가 흔들렸었다.

중금속문제가 잠잠하더니 이번에는 농림수산부 산하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오메가돼지」라는 것을 내놔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금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새우나 오징어의 1/3 정도밖에 안되고, 최근 미국에서는 생선이나 가금류의 가슴살과 같이 백육(white meat)으로 분류돼 소비가 급상승 하는 판에 홍보가 잘못되면 「오메가돼지」의 상표가 붙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이라고 오히려 소비자가 기피하지나 않을까 걱정도 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좋아하는 쇠고기와 보신탕이 최근 잔혹한 도살행위 홍보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물량이 부족한 한우(국산쇠고기의 대명사)나 개고기의 성수기에 소비량을 조절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급조절을 한다면 결국은 이들 악덕업자보다는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아 생산기반만 취약하게 할 따름이다.

12월이면 항생제, 설파제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이를 적절히 수급조절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갖는다면 아예 생산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도축, 가공처리, 유통이 생산단계부터 연계되어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투자하지 않으면, 소와 개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양축가에도 물먹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흔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